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8

“우리도 함께 뛰다”

‘농촌살리기’ 도심 속으로의 레이스

■ 농협 광주지역본부

“공정으로 도전하고, 열정으로 성취하자.”
농협 광주지역본부가 내건 올해의 캐치프레이즈다.
농협 광주본부는 제46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를 통해 도전심을 시험하고 성취감을 이루는 기회로 삼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갈수록 폐쇄해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도전심을 기르겠다는 것이다.



농협 광주본부 직원들이 3·1절 마라톤 대회를 통해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도전심을 시험해보겠다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열정의 무대 즐기면서 완주

조영조 본부장은 “올해는 농협이 창립한지 50주년 되는 해”라며 “과거 50년을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과 직원들은 이번 대회에서 5km에 도전한다. 조 본부장은 “직원 모두가 즐기면서 완주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경진(36) 기획총무팀 과장은 생애 처음

으로 마라톤에 참가한다. 비록 5km코스지만 상등이 아틀(6)을 포함해 전 가족이 땀 흘리며 뛰었다.

홍영배씨 풀코스 30번째 도전

다. 이 과장은 “완주에 따른 성취감을 경험하게 하고 컴퓨터 게임보다는 운동을 좋아하는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온가족이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영배(57) PB센터 개설준비위원장은

풀코스 레이스에 나선다. 이번 대회가 풀코스 30번째 도전이다. 이제껏 땀 흘려온 풀코스 40번 완주를 포함하면 총 70번째 마라톤 완주를 기록하게 된다.

농협 광주본부는 3·1절 마라톤대회에서 지역 우수 농산물 홍보와 소비촉진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광주 농산물 대표 브랜드인 ‘빛찬들’과 광주통합RPC(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되는 광주쌀의 우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최근 구제역·조

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축산농민들을 위해 오리고기 등의 소비 촉진 활동도 펼 계획이다. 조 본부장은 “농업은 식량창고이자 생명명의 안전관”이라며 “구제역·AI 등으로 농촌과 농업인들이 어려운데 이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3·1절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살리기에 앞장섰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스펙보다 실무... 작지만 강한대학 우뚝

■ 남부대학

“작지만 강한 대학! 실용인재 육성의 요람! 남부대학교로 오세요.”
오는 2020년 4년제 대학 100위권 진입을 목표로 특성화된 전문인력 양성에 헌신하고 있는 남부대학교 조성수 총장과 교직원·학생들의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출사표다.
지난 1993년 광주 첨단단지에 개교한 남부대학교는 유연한 교육시스템과 산학협력력을 통해 전문화된 실용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남부대학교는 광주일보 3·1절 마라톤대회를 계기로 4년제 대학 100위권 진입에 도전한다. 교직원과 학생들이 “작지만 강한대학”을 외치며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산학협력 실무형 인재 양성

남부대는 그동안 ▲보건의료 ▲자동차·기계부품 ▲문화콘텐츠 ▲동양한방의 학 등 4개분야 전문인력 양성 특성에 힘써, 지난 2007년 92.8%, 2008년 92.8%, 2009년 91.5% 등 최근 3년간 90% 이상의 취업률을 기록하며 실무형 인재 양성학교로 우뚝 섰다.
조성수 총장은 “남부대학교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기존의 대학 교육을 과감히 혁신하고 실무형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산학협력력을 더욱 강화하는 등 취업 후 현장에서 각광받는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 취업률 90% 이상

매년 남부대학교는 간호학과를 비롯한 21개 학과(입학정원 829명)와 일반대학원을 비롯한 3개 대학원(입학정원 160명)등 1000

여명을 선발한다. 현재 학부 2600여명, 대학원 400여명 등 3000여명이 재학 중이다. 3·1절 마라톤대회를 진두지휘하게 될 최승식 학생복지실장(태권도경호학과 교수)은 이번 대회를 시·도민들에게 남부대학의 건강하고 열정적인 패기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기 위해 노심초사 하고 있다.

평소 축구와 등산을 통해 체력을 단련해 온 김동복 입학 홍보처장은 ‘작지만 강한

대학, 취업이 보장된 대학’을 알리기 위해 신발끈을 동여맸다. 김 처장은 “남부대학은 지난 3년동안 95%에 근접하는 취업률을 올린 명실상부한 실무형 인재양성 학교로 자리매김 했다”며 “3·1절 마라톤대회 출전을 계기로 모든 교직원들이 한마음으로 학교를 알리고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각오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인경 악! 퀸투플보기

Quintuple Bogey

17번홀 어프로치 실수 5타 잃어...LPGA개막전 공동3위

청아니 15연타파 우승

한국여자골프공단이 세계랭킹 1위 청아니(대만)의 무서운 상승세를 꺾지 못했다. 청아니는 20일 태극 춘부리의 시암 골프장(파72.6천477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개막전인 혼다 LPGA 타이랜드 마지막 4라운드에서 흔들림 없는 샷을 날리며 6언더파 66타를 적어냈다. 이에 따라 4개 라운드 최종합계로 15언더파 273타를 치며 우승컵을 들어 올린 청아니는 이날 들어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포함해 LPGA 투어 개막전까지 우승하면서 올 시즌 여자골프의 최강자로 급부상했다.

2008년 LPGA 투어에 데뷔한 뒤 통산 6승을 거둔 청아니는 상금 21만7500달러를 가져가며 세계랭킹 1위 자리에 굳건히 지켰다. 김인경(23·하나금융)은 16번홀까지 2타 차로 따라붙으며 청아니의 독주를 저지하려 했지만 17번홀(파4)에서 어이없는 어프로치 샷 실수로 한꺼번에 5타를 잃어(퀸투플보기)버리는 바람에 카리 웹(호주)과 함께 공동 3위(9언더파 279타)로 내려앉았다.

장타자 위성미(22·나이키골프)도 청아니와 챔피언전에서 동반플레이를 펼치며 견제했지만, 퍼트가 마음먹은 대로 홀에 떨어지지 않아 청아니에 5타 뒤진 준우승(10언더파 278타)에 머물렀다. 김인경은 14번 홀에서 청아니를 1타차까지 추격했지만 버디퍼트를 놓치며 아쉬움을 남겼다. 15번홀(파5)에서 세번째 샷을 홀 1.7m에 떨어뜨린 김인경은 버디퍼트를 놓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기회를 놓쳐버렸다. 여유를 되찾은 청아니는 15번홀에서 2m 버디 퍼트를 홀에 떨어뜨려 다시 2타 차로 앞서 나갔고 김인경은 17번홀에서 퀸투플 보기로 완전히 무너지며 우승컵을 청아니에게 헌납했다. 김인경은 두 번째 샷을 그린에 못 미친 페어웨이에서 떨어뜨리고 나서 세 번째 샷을 날렸지만, 볼은 그린에 오르지 못한 채 내리막 경사를 타고 제자리로 돌아왔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샷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김인경은 여섯 번째 샷을 그린 뒤로 넘겨 버렸고 여덟 번째 샷 만에 볼을 그린 위에 올린 뒤 5타를 잃고 나서야 간신히 홀아웃했다. /연합뉴스

나상욱, 투병 아버지위해...

PGA 노던트러스트 3R

선두 배틀리 1타차 추격

재미교포 나상욱(28,타이틀리스트)이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에게 우승트로피를 바치기 위해 매서운 샷을 날렸다. 나상욱은 1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리비에라 골프장(파71·7298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노던트러스트오픈 3라운드에서 버디 7개에 보기 3개를 묶어 4언더파 67타를 쳤다. 1라운드에서 이븐파 71타를 친 뒤 이를 연속 타수를 줄여나간 나상욱은 중간합계 9언더파 204타를 적어내며 52세의 노장 프레드 컵러스(미국)와 함께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단독 선두 애런 배틀리(호주·10언더파 203타)에 1타차로 따라붙은 나상욱은 20일 열리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PGA 투어 첫 우승에 도전한다. 챔피언조는 배틀리와 나상욱, 컵러스로 편성돼 한국시간으로 21일 오전 3시30분 터



오프했다. 나상욱은 경기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아버지께서 작년 12월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다”며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꼭 우승 트로피를 바치고 싶다”라고 말했다. 아버지 나용훈(58) 씨는 아들에게 골프를 가르쳐 주고 한때 캐디까지 맡는 등 나상욱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한편, 최경주(41·SK텔레콤)는 1번홀(파5)이클에 힘입어 1언더파 70타를 적어내며 공동 14위(4언더파 209타)에 올라 상위권 진입의 발판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SK, 삼성 꺾고 6강 PO 불씨

2010-2011 프로농구

프로농구 서울 SK가 ‘열정 라이벌’ 서울 삼성을 꺾고 6강 진입을 향한 불씨를 되살렸다. SK는 20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0-201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75-69 역전승을 거머쥐었다. 테렌스 레더가 22점 8리바운드로 ‘더블더블’급 활약을 펼치며 승리에 앞장섰고 김효범은 18점 4리바운드 3도움, 김민수는 14점 8리바운드, 변기훈은 9점을 거뒀다. 이번 전 한 계단 위인 6위의 LG에 일격을 당했던 SK는 삼성을 상대로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면서 18승25패로 LG를 한 발짝 더 뒤쫓으며 플레이오프 진출 마지노선인 6강 진입의 희망을 되살렸다. 반면 지난 16일 안양 인삼공사에, 18일에는 부산 KT에 각각 발목을 잡았던 삼성은 이날 패배로 안방에서 3연패를 곱씹었다. SK와의 이번 시즌 상대전적도 1승4패로 내려앉았다. 높이를 이용한 턱슨의 골밑 득점에 이정석의 외곽포로 삼성이 먼저 물꼬를 틔우자 SK는 김민수·김효범의 3점슛과 테렌스 레

더의 과감한 돌파로 따라잡아 16-16 동점으로 1쿼터를 마쳤다. 조급씩 흐름을 되찾은 삼성이 이원수·이정석의 석점포와 김동욱의 중거리포로 전반까지 37-28로 달아나는가 싶었지만 3쿼터 들어 SK가 다시 살아났다. 삼성의 득점을 15점으로 묶어낸 사이 레더가 제치있는 스틸을 끝바둑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등 차분하게 점수를 쌓았고 신상호의 3점포와 김효범의 2점슛으로 4쿼터 초반 53-52 역전에 성공했다. SK에서는 레더와 변기훈이 해결사로 나섰다. 김효범과 번갈아가며 착실하게 점수를 쌓은 레더는 66-66 동점 상황에서 과감한 돌파로 68-66 역전에 성공했고 여기에 변기훈이 3점포로 림을 가르치며 71-66으로 점수를 벌렸다. 삼성은 나이젤 턱슨과 이승준이 각각 16점씩 넣고 이원수와 이정수가 10점씩을 보냈지만 막판 뒷심 부족으로 안방에서 승리를 내주고 말았다. 한편,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울산 모비스와 전주 KCC의 경기에서는 KCC가 모비스에 96-86 역전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곽민정 4대륙선수권 8위

안도 미키 우승, 아사다 마오 2위

한국 여자 피겨스케이팅의 ‘버티목’ 곽민정(17·수리고·사진)이 2011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선수권대회를 8위로 마감했다. 곽민정은 20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96.68점을 받아 전날 쇼트프로그램 점수(50.47점)를 합쳐 종합 147.15점으로 8위에 올랐다. 곽민정은 기술점수(TES) 51.09점과 예술점수(PCS) 45.59점을 받았다. 지난해 같은 대회에서 기록했던 성적(154.71점·6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년 연속으로 톱10에 오르면서 중견 선수로서 입지를 다졌다. 금메달은 일본의 베테랑인 안도 미키가 차지했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66.58점으로 선두에 나섰던 안도는 초반부터 후한 가산점을 받으며 134.76점을 기록해 자신의 역대 최고점인 201.34점으로 우승했다. 일본 여자 싱글의 간판인 아사다 마오는 196.30점으로 준우승했다. /연합뉴스

쇼트트랙 양신영 금

월드컵 6차 1500m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양신영(21·한국체대)이 2010-2011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6차 대회 1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양신영은 19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1종목에서 2분21초724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양신영과 함께 결승에 오른 황현선(세화여고)은 캐나다의 마라-이브 드로레트에게 밀려 3위에 올랐고, 김담민(부림중)은 실격했다. 남자 1500m에서는 이호석(고양시청)이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나 아깝게 금메달을 놓쳤다. 마이클 길데이 등 캐나다 선수 두 명은 제쳤으나 중국의 류센웨이에게 밀려 2위로 들어왔다. /연합뉴스

